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위임관리
이전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2015년 9월 3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용범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위임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위임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25일(화), 차재홍 의원 외 9인

3. 위원회 회부일자

- 2015년 8월 25일(화)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경의선 전철화 사업으로 지하화되어 유휴 부지로 남겨진 용산 문화체육센터에서 가좌역 구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지난 2009년부터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2 단계구간이 완료되어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되었으나 서울시의 공원 관리가 청소나 단순 보수 등의 기능에만 그치고 있어 종합적인 녹색문화공간으로서의 시민 눈높이에 맞춘 공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마포구의회는 경의선숲길 공원조성에 따른 공원 관리권을 마포구로 이전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경의선숲길 공원은 수명을 다한 경의선 옛 폐선 공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녹색 선형공간으로 녹지가 부족했던 지역의 녹지경관을

크게 향상 시킨 것은 물론, 산책로와 자전거 길 조성 및 운동시설과 테마가 있는 편의시설, 광장 등을 설치하고 또한 인근 직장인과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주민 휴식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사업이 최종 완료되면 오랜 세월 기차가 다녔던 철길은 이제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된 새로운 녹색 문화 공간으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공원으로 변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가 됨.

- 그러나 이와 같은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의선숲길 공원중 이용자가 포화상태인 동교동~연남동 구간은 취객 및 애정 행각 커플들이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과 특히 그늘이 있는 넓은 잔디위에서 텐트를 치고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로 공원 이용자들과 자주 다툼이 발생되고 있으며,
- 또한 경의선숲길 공원 6.8km의 선형공원 이용자 중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 및 운동을 나오는 이용자들이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다른 공원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1~2단계 완료 구간을 관리해오고 있지만 공원관리가 청소나 단순 보수 기능의 역할만 하고 있어 종합적인 녹색문화공간으로써의 시민 눈높이에 맞춘 공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원 관리권을 마포구로 이관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만약, 마포구에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완료에 따른 위임관리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조성된 경의선숲길 공원은 효용가치가 떨어져 이용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따라서, 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공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운영관리권을 마포구에 위임해 줄 것을 40만 구민의 뜻을 모아 서울특별시에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 됨.